

보도 시점 2025. 9. 30.(화) 16:00 배포 2025. 9. 30.(화) 12:00

“기업에 상주하는 세무조사*”는 이제 옛말” 지난 60년 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의 첫 시작

- 임광현 국세청장,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
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혁신방안 등 발표 -

* 납세자의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·상주하며, 질문·조사하는 현장조사

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9월 30일(화) 경제현장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「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」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(회장 김기문)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-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“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, 지난 몇 년간 50%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%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”면서, “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하였습니다.
- 임광현 국세청장은 “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말하며,
 - “특히, ERP 등 전산장부·증빙이 보편화되고,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,
 -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- 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현장조사 방식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.
-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“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·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있으면, 회사 고유 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,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”고 하소연하며,
- “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,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”고 건의하였습니다.

Ⅱ 현장 상주조사 관련 주요 의견 (경제단체 설문결과) Ⅱ

①	"현장에 조사팀이 상주하고 있으면, 일과시간에는 조사팀을 상대하느라 기업 본연의 업무는 일과시간 이후에 처리할 수 밖에 없음 "(△△서비스업, 파트장)
②	"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, 세무조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마련이 어려운 업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"(◆◆운수업, 재무부장)
③	"현장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, 현업부서 직원들까지 긴장하고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조성됨 "(□□도소매업, 경리팀장)

□ 이에 대해, 임 청장은 장기간의 현장 상주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며,

○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혁신의 첫 걸음으로, 「현장 상주조사 최소화」를 새로운 표준(New Normal)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,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○ 그 일환으로, 「정기 세무조사」는 납세자의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*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, **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,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****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.

*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서면(FAX, E-mail), 유선, 납세자 방문 등으로 조사 실시

** ①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, 조사관서 방문 부담 등으로 **납세자 입장에서 오히려 현장 상주조사**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

② 자료 미(지연)제출 등으로 **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**

○ 아울러, 납세자가 조사관서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오로지 국세의 부과·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, 자료의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□ 한편, 임 청장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,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.

-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“현장조사가 최소화된다면, 사무실 마련이나 현업부서 직원 사기저하와 같은 그동안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 “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경영활동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”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
- 향후에도, 국세청은 기업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세무조사 방식·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는 한편,
-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조사국 조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상준 (044-204-3501)
		담당자	사무관	정성한 (044-204-3517)
<협조>	법인납세국 법인세과	책임자	과 장	신재봉 (044-204-3301)
		담당자	서기관	유민희 (044-204-3302)



<기념 촬영 사진>